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욘 1:1~17) 2026 년 6 월 14 일 화란한인교회

1. 성경 요나서를 읽으면 자주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청이라고, 한국 문학작품 심청전의 주인공이지요. 심청이는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공양미 3 백 석에 인당수 물에 던져졌지요.

2. 이런 작품을 접한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의 결말도 보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 희생이 심청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은 그런 해피앤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어느덧, 세상이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성 속에 빠져들게 되지요.

3. 요나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그래야 폭풍에서 배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게 되지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모두가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요. 그리고 결국, 적어도 구원은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당위에 이르게 됩니다

4.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서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5.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놓고 보면, 심청이나 요나나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요나 역시 그런 효심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요나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적어도 요나를 그렇게 위대한 봉사자로 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6. 요나서에 나오는 큰 성읍 니느웨는 앗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지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지요. 세상 역사에서 살펴 보아도, 그들은 그렇게 매우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7. 그래서 그런 원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부터가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향해 이란이 믿는 신이 침묵한다면? 그 신은 정의가 무언지 모르는 신이라고 하겠지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8.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욘 1:2)” 뭐라고 외치라는 것입니까? 요나서 3 장 4 절에 “**40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것이지요. 40 일 후에는 멸망이라는 소립니다.

9.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길이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마지 못한 길이 되겠습니까? 요나는 그런 고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비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10. “나는 그런 하나님은 싫다”는 것이지요. 무슨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까? 원수를 40 일 후에 박멸시키시려는 하나님? 아니지요. 그렇게 위협해서 회개시키시려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원수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11. 그런데 그런 요나가 우리에게 심청이처럼 보이는 것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뱃길에서 풍랑을 만난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그것 만 보이지요. 전체 그림은 아직이고, 눈 앞의 현실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풍랑의 원인임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주는 요나가, 마치 자기를 희생하는 의인처럼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12. 요새 많이 회자되는 인물 중에, 본 회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Die Bekenntnis Kirche)의 목사인데,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해서, 감옥에서 처형당한 분이시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발키리 작전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3. 본 회퍼하면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미치광이가 승객이 가득한 버스를 몰고 벼랑으로 돌진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미치광이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멸망으로 몰고가는 당시의 나치 히틀러를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막아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14. 명분은, 다수의 목숨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 수단은 암살입니다. 이 긴박한 장면에서 사람들은, 이 살인을 정당화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질문에 답을 내고 말지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고민없이 그러한 시도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 그러한 살인 앞에, 사람들은 한동안, 조금의 주저함도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지요. 비겁하다고! 결국 모두가 다 심청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빠지는 것입니다. 본 회퍼목사처럼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낙인을 찍지요.

16.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의 근원이 요나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음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나서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읽는 자, 곧 독자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의에 대하여, 공평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기준이 있지요.

17. 그러면서 성경에서 무슨 도덕이나 예절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읽기의 목적이 공부에 있는 것이지요. 무슨 좋은 실천방안이라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뒤적인다는 것이지요. 자기 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 말입니다.

18.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기를 숨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좋은 예법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자아라는 안경을 쓰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19.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서는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누구더러 읽으라고 준 예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어쩌면 곧 앗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나 그 나라 백성일 것입니다.

20. 그런데 펼치자 마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쏠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원수, 앗시리아 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 만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요. 또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있습니다.

21.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요나를 보내어서, 이방인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더러 읽으라고 주십니까? 그 이방인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둬서 멸망당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더러 읽으라는 말입니다.

22. 즉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고, 결국 다 죽게 만들기를 바라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요..

23. 여러분, 여전히 요나가 심청이 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본회퍼 목사? 그런 과정에서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숭고한 희생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말은 자기를 바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니느웨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지요.

24. 누구도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되는 것은 죽어도 싫다는 말이지요. 차라리 자신이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사역을 좌초시키려는 심보라는 말입니다.

25. 나중에 요나의 행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땡볕에 멀리 나가 섰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의 머리 위에 박덩쿨을 얹으시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실상이지요. 자기 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의 민낯입니다.

27.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니느웨 말이 아닌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입니까? 왜 이 이야기가 앗시리아가 아닌 이스라엘의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또 왜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28.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습성입니까? 내 하나님이 내 원수를 망하게 해야 하고, 또 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의 습성입니다. 그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간직하고 있는 기독교회의 전통인 것이지요.

29.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롬 3:29)”